

## Inter related space

남윤지\_박정선展

2009\_0618 ▶ 2009\_0701

종이 그리드로 채워져 있는 공간 사이에 가슴기가 매달려 습기를 내뿜고 있다. 지속되는 가슴에 의해 일그러지고 늘어지는 종이 그리드. 그리고 변화하는 공간의 표정. 이번 전시에서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간'은 남윤지와 박정선 두 작가의 작업이 동시에 작용 가능하도록 하는 용매(溶媒)다. ● 함께 전시된 두 작업은 일반 전시에서처럼 분할, 구분되어 각각에 대한 습관적인 몰입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섞여 얽혀있는 편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놓여 있는 오브제 자체 보다는 두 작가의 보이지 않는 공통 관심사를 부각하는데 '공간'에 대한 물체적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내가 '공간'을 부연하려 '물체'라는 단어를 적용한 이유는 이들 작업에서 공간이 대상과 감상자 사이의 소통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 매개 역할 뿐 아니라 대상과 감상자 상호간의 동적 관계를 실증하는 또 하나의 오브제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레이첼 화이트 리드의 작업 등, 공간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 공간을 캐스팅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공간의 부피와 양적인 측면을 '시각화'하기 위한 '제작'이었다. 그 외의 과정적 성격을 지닌 현대미술을 대할 때 우리는 오브제 자체의 외형적 변화나 그 물성에 대해 얘기해 왔지만 그러한 변화를 매개한 환경에는 덜 주목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미술에서 설치라는 개념이 작품의 감상 영역을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 내에 설치된 여러 작업을 감상 할 때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리감상을 묵인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두 개의 작업은 대놓고 얽혀 있음으로써 미학적 목적에 따라 기꺼이 '작품 제작'의 의미를 봉사토록 하고 있고 우리의 논의를 오브제의 보이는 상태가 아닌 이를 둘러싼 공간으로 옮겨놓는다.

박정선의 매달려 있는 가슴기와 남윤지의 공간을 채운 종이 그리드의 만남은 양 쪽의 작업 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영리한 주석으로 각자 작업의 핵심을 부각하고 있다. 박정선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치즈를 깔아 중앙선을 그리거나 온도 차이에 의해 물방울이 맺히는 금속기동작업, 그리고 물건들을 바닥과 천정 사이에 위치시킨 (매단)작업,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의 둥근 형태를 일그러뜨리며 공간과 반응하는 캐러멜 작업 등을 보인 바 있다. 단순히 형태의 유동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작품에서 선택된 오브제들은 환경과 반응, 기화, 증발, 산화, 용해 등의 운동을 통해 마치 포자식물처럼 대상의 파편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직접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대상 간의 공간은 이러한 물질의 운동으로 뻣뻣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 공간은 더 이상 비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남윤지의 작업은 공간의 재현에 대한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구 회화는 실제 공간을 과학적 규칙을 통해 회화적 리얼리티로 구현하기 위해 원근법을 사용해왔다. 한 점을 향해 좁아지는 선은 공간의 관념적 재현인 것이다. 남윤지는 과거 회화작업에서 그리드를 이용한 관념적 공간을 탐구해 왔던 것이 현재는 실제 공간에서의 그리드작업을 구현 중이다. 그런데 마치 점, 선, 면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듯이 공간은 우리의 몸이 닿아 있는 현실에서 실이나 끈, 철사로 '재현'되자마자 '빔'이 아닌 그 공간을 채우고 대체하는 '물질'로 치환된다. 여기서 존재와 비 존재, 물질과 비 물질을 경계 짓던 근거였던 '시각성'이

라는 기준이 교란을 맞게 된다. 현실은 물리적 세계이고 관념이라는 것은 물리적 상태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비시각적 도구인 것이지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란 무의미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남윤지의 작업은 명확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관념적 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실제 공간과 관람자를 새롭게 만나도록 한다. ● 그린버그의 평면성 논의도 한 예이지만 시각 기반 한 서구식 합리적 태도는 세계를 파편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분화 해 왔다. 반면 동양은 바람과 습기 등 비가시적(혹자는 비 물질로 말하기도 한다.)요소를 물질, 즉 우리의 몸과 같은 자연의 한 조각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전자의 대안으로 주목되어 왔다. 둘러싼 공간을 마치 물처럼 체험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을 만물과 같이 공간 속에서 뒤 섞여 있는 일부로 보는 문화적 공감대의 소산이듯 아무런 두려움 없이 뒤섞인 남윤지와 박정선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감상의 즐거움 또한 커지리라 생각한다. ■ 김도희